

도 동물의약품 특구 '청신호' 적정성 심사 통과

비수도권 20개 중 4개만 적정 판정
 490억 투입 익산·정읍 3개 실증 추진
 연구·평가 등 윈스톱 생태계 강점
 생산 587억·고용 352명 효과 기대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향후 전북은 동물의약품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적정성위원회 심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 20개 후보과제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단 4개 과제만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함께 선정된 지역은 경남(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의료목적 미량 칸나비노이드), 울산(재활용탄소연료)으로, 전북의 동물의약품 과제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양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에 의해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험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과 함께 실증 R&D,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2019년 첫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전국 4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중 25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는 전북의 탄탄한 산업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익산에는 국내 유일의 동물의약품 특

구 평가기관인 (재)한국동물의약품평가연구원, 정읍에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어 연구·평가·인허가 지원까지 아우르는 윈스톱 실증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익산 동물의약품 클러스터는 국내 동물의약품 기업들이 집적된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총 9.77㎢ 부지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90억 원(국비 273억·지방비 167억·민간 50억)을 투입해 3개 실증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사업으로는 ▲첨단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자료 일부 제출 면제 실증 등이다.

이번 특구 추진의 배경에는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한다.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은 약 1조 3,743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3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용 의약품은 수입 비중이 74%에 달한다. 규제 특례 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입 대체 비중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약 25억 원에 불과한 자가백신 시장도 485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어사이드 등 13개 예비사업자가 참여 준비를 마쳤으며 생산유발 587억

원, 부가가치 창출 276억 원, 고용유발 352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향후 분과위원회·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최종 특구 지정·고시는 5월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적정성 평가 통과를 전북이 동물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특구 지정을 이끌어내고,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익산·정읍 축으로 전북도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기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갔다. 정읍·익산의 전북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위치 및 면적. <사진=전북자치도>

우범기 전주시장, 재선 '출사표' 100만 전주·AI 대전환 완성 가속

100만 광역도시·행정통합 추진
 피지컬 AI 산업 중심 성장 고도화
 광역교통망·대형개발 속도전
 문화관광·복지 확대 성과 이어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00만 광역도시' 도약과 '피지컬 AI'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주의 판도를 바꾸는 대변혁을 완성하겠다고 민선9기 재선 도전을 최근 공식 선언했다.

"더 큰 전주로 행정통합을 비롯한 광역도시화를, '더 강한 경제'로 민선 8기의 성과를 이은 비약적 성장을, '더 행복한 시민'으로 더불어 잘 사는 전주를 향한 의지를 강하게 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지난 4년은 해묵은 난제를 과감히 풀어나며 멈춰있던 도시를 다시 움직이게 한 시간이었다"며 "민선9기는 '제대로 된', '진짜 일'을 해 본 전주시장이 전주의 청사진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3중 소외를 우려하며 제3 금융중심지 등 전주와 전북에 애정이 깊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동영, 김윤덕, 이상윤 등 중랑급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완벽한 '윌팀'을 이루어 전주 발전의 다시 없을 호기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비전으로는 행정통합을 통한 '100만 광역도시'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완주, 김제와의 통합을 본격화하고, 2028년 글로벌 MICE 복합단지를 비롯해 옛 대한방직 부지 등 4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조 8천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 교통망과 외곽순환도로를 조속히 착수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의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강한 경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인 '피지컬 AI'를 지역 산업에 접목해 30만 평 규모의 '피지컬 AI-J 밸리'를 대한민국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복합재 기반 방위산업 및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전 통시장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사진=우범기 예비후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실현도 약속했다. 후백제 역사와 전라감영 복원 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덕진공원과 이중호수 등 4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한지와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이끌어내 전주의 문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복지망 고도화와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계획도 내놓았다. '전주함께라면' 플랫폼 고도화와 생애 전주기 돌봄 확대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짜고, 전국 대회 규모의 파크골프장 증설 등 도심 전역을 정원도시로 가꾼다. 나아가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2036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여 전주의 브랜드를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다.

우 예비후보는 지난 시정에 대한 뼈저린 자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종합경기장 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푸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느라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서 챙기거나 정치권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참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생활했던 절박한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전주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겠다"며 "시정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임을 명심하고, 위대한 전주 시민과 함께 '내 삶' 바꾸는 전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지지율 호소했다.

특히 "지역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전주 시장이 되겠다"며 "전주 시민과 함께, 오직 전주를 위해 다시 한번 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장정철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65%...경제 악화로 6주만에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 사상 최저 19%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승세가 소폭 꺾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65%로 나왔다. 5주 연속 상승 후 6주만의 하락 전환이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낮아진 24%

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65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 '부동산 정책'(이상 8%),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서민 정책/복지'(6%),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주가 상승'(3%)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

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작년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좁혀졌다.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최고 47%(지난주)에서 최저 38%(작년 9월 4주),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최저 19%(작년 7월 2, 3주, 이번 주)에서 최고 26%(수차례) 사이를 오르내렸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과 동률인 27%에 그쳤다. 대구경북 무당층은 42%나 됐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7%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1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역사문화도시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

1966년 7월 26일

미륵사지 사리장엄

2022년 12월 27일

미륵사지 석탑

1962년 12월 20일

왕궁리 오층석탑

1997년 01월 01일

道,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현장 즉시 징수

9일간 41명 집중 실시...징수 강화 현장 납부 유도 7200만원 확보 명품·차량 등 고가 자산 압류

전북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지난 27일 도에 따르면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조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

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특히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고액 체납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명품 가방 등 현장 압류된 고액 상습 체납자 고가 자산 <사진=전북도>

전북타임스 창간 15주년 축하메시지



오광석 무주군의회장

전북타임스 가까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때로는 지역의 과제를 공론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성실히 기록하며, 도민과 함께 호흡해 온 뜻깊은 발자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건강한 여론 형성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최준호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타임스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때로는 지역의 과제를 공론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균형 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보도로 전북의 가치와 미래를 널리 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언론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창간 1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전북타임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방교육...대응 역량 강화

화재 대응·대피요령 체험형 교육 부안 시작, 입국 시기 맞춰 확대

전북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에 나섰다. 도는 소방본부와 협력해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부안군에서 첫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에 따라 숙소와 작업장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진 데 대응해 마련됐으며 언어 차이로 인한 긴급 상황 대응 한계를 고려해 현장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119 신고방법 ▲외국인을 위한 119 통역서비스 안내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통역서비스 활용 방법을 함께 안내해 외국인 근로자도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소화기 사용법 교육 농촌 현장의 중요한 인력"이라며 "소방본부와 협력해 안전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 금융·AI 집중 육성, 청년 정주도시로"

국주영은, 전주 성장동력 제시 "대통령 공약 전주 산업 연결"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지난 26일 임정문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를 언급하며 보여준 각별한 애정에 감사를 표한 뒤, 이를 전주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도시와 AI 거점도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 후보는 전주를 떠나는 청년 문제의 본질을 양질의 일자리 부재와 보이지 않는 미래로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가 전략 산업을 전주의 먹거리로 확실하게 연결하는 것이 시장의 실력"이라며,



국주영은 예비후보

"금융과 피지컬 AI 육성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전주에 대한 자긍심을 되살려 주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 후보는 "전주에서 태어난 이들이 전주에서 공부하고 꿈을 펼치며 가정을 꾸리는 '청년 정주 도시' 전주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며, 금융과 AI를 중심으로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조지훈, 정책 멘토단 출범...전주 미래 설계 본격화

AI·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구성 전주형 콘텐츠 발굴·세대아우러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조지훈의 전주 정책을 설계하고 종합하는 정책 멘토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정책 멘토단은 여성·청년·도시계획·인공지능·에너지·사회복지·문화콘텐츠·인문 등 분야별 '전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의 자원과 전략을 분석해 전주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전주라는 도시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며, 「정책 멘토단」은 조지훈 예비후보의 4대 시정 방향인 '기본 사회를 선도하는 전주'·'아시아 문화 중

심 도시 전주'·'민생 최우선으로 혁신하는 AI 전주'·'시민을 존중하는 시민주권의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998년 정치를 시작한 이후 전주를 연구하고 행동해온 '전주 전문가'로 개발자의 시민배당·드론 택시 프리존·AI 시민대학·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데이터 프리존·전주역세권 종합개발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구현하고 제안해왔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정책 멘토단」 출범으로 강력한 실행력에 전 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며, 30대 청년 연구자부터 70대 원로 전문가

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멘토단을 통해 전주의 미래 10년·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 멘토단은 각 분야 전문가가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주의 공간·사람·자원·산업이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점을 기존 선거 캠프의 자문단과의 근본적인 차이로 설명하고, "주거가 문화와 연결되고, 생태가 산업과 맞닿고, 교육이 지역 일자리의 이어지는 방식, 전주만의 고유한 맥락 위에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정책 멘토단」은 현재의 전주시정을 "시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시장 독단의 시장주권 전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주권의 전주"로 혁신할 것을 천명했다. /장정철 기자



조지훈 예비후보

이원택 "수도권 1시간대" 전북 철도 재편 공약

전주~수서 KTX 신설 추진 도내 전역 1시간 생활권 실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철도망 전면 확충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북도내 전역까지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구상안은 ▲전주발 수서행 KTX 신설과 전주역 주차장 확충 ▲정읍역 KTX·SRT 추가 정차 ▲임실역 KTX 정차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 빠르고 편리한 철도 이용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주역은 수서행 전라선 KTX 10편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 시민이 수서까지 가려면 상행 2회 운행되는 데



이원택 의원

그쳐 열차 좌석 구하기도 어렵고, 익산역까지 가서 수서행 SRT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전주역의 경우, 현재 용산행 고속철 중 서대전을 경유하는 주중 4편, 주말 6편을 일반선에서 고속선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는 "그렇게 되면 운행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주말 기준 6편을 12편으로 증편시킬 수 있고, 전주 시민 1인당 약 50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읍역은 KTX와 SRT 각각 10편씩 추가 정차시켜 '제2의 철도 요충지'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KTX와 SRT 각각 상하행 14편과 18편이 정읍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과 인근 시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역도 마찬가지다. 임실군의 연간 생활인구는 25만으로 수요가 충분하다. 또 인근 장수와 순창 주민들, 35사단 장병들도 잠재적인 수요층이며, 치즈와 산타 축제 등 임실의 4계절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수요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역의 경우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해 도내 철도 이용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버스과 일반열차, 고속철 간 환승을 하나로 연결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환승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인근 김제역은 하루 두 번 KTX가 정차하지만, 차량만 KTX일뿐 일반 선로를 이용하고, 서대전을 경유하기 때문에 일반열차나 다름 없다. 또 다른 시·군에서 익산역까지 이동한 후 고속철로 갈아타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원택 후보는 "전북 14개 시군이 소외되지 않는 철도 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율=김영목기자

깨끗한우·안전한우

장수한우

JANGSU KOREAN BEEF

종축개량과 저탄소 사료개발로 친환경 축산업을 선도하는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장수한우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Jangsu Hanwoo - local corporation



종축기지화



TMR사료 개발



우량유전자 개발



브랜드육 유통활성화



저탄소 산업화 구축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도의원 출마

16년간 의정활동 경험 토대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전북동, 금암동)(사진)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남 의장은 이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제8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지난 16년간 시의원으로



남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전북

시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전주와 전북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전북

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벌칙금 지방세입 전환 건의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시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을 위한 생활정치의 길을 걸어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별보좌역 지방자치특별보서로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

정책에 맞춰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관우 의장은 완주군 경천면 출신으로 2006년 첫 당선 이후, 4선 의원으로서 복지환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추진

알권리 보장·사회참여기회 확대
월 4회 배송 무료 제공

전주시 장애인들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위한 '2026년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사회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신 복지 정책과 법률 정보, 재활 및 교육 소식 등 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에 한해서다.

시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김영태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독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장애인신문과 장애인복지신문 중 원하는 신문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주 1회(월 4회)우편으로 신문이 자택이나 직장 주소지로 배송된다.

시는 실제로 정보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신문은 매주 무료로 제공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T/F회의' 개최

관계성 범죄 적극적 사건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재범 우려 대상자 집중관리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생활안전부장 주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T/F회의에서는 생활안전부장을 T/F팀장으로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범죄예방과 112상황실 등으로 구성됐다.

T/F회의는 관계성범죄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도 등급별 적 정 여부 심의 △관계성 범죄 업정 대응

위한 단계별 조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재범위험성 평가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범 우려가 큰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관리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관계성 범죄가 단순한 개인간의 갈등을 넘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올림픽 유치 실행전략' 민·관 협력 강화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
위원회' 지원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전주시가 올림픽 유치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7일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지원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했다.

앞서 개최된 제1차 지원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시민 참여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 △홍보 전략 강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 주요 추진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특히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제시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를 토대로 유치 단계별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회의는 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과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

정부·지자체·대학 공동 지원

전주시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1000원에 대학생들

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오는 12월 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운영 요일은 보통 평일(월~금)이며, 전주대학교의 경우 화~목요일에 식사를 제

공한다. 사업 재원은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정부와 지자체, 참여 대학이 나머지 식단가를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주재료로 사용

함으로써 청년들의 식사 지원은 물론, 지역 농가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학생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사업 건강의료안전망' 설명회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회장 박용현)는 지역 의료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주시 통합돌봄사업 건강의료안전망' 설명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의료 분야 핵심 사업으로, 시가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기반 의료지원 체계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군 분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한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내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 '지역정착 및 활력수당' 대상자 추가 모집

재직 청년 1318명에 월 30만원 미취업 청년 879명에 월 50만원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참여할 청년들을 추가 모집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20일까지 1차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다.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과 중소

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전주시 청년 1318명에게 생애 1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18세~39세)으로, 도내에서 농업과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여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30%)과 지역화폐(70%)로 수당을 받게 되며,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문화재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전

주 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시는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을 돕고, 사회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18세~39세)으로, 시는 올해 879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원씩을 최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

27일부터 '노인·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

전주시는 돌봄서비스 기반 조성 과 전달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65세 미만 지적·뇌병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영양

지원 △주거지원 등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실무담당자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해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8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850여명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문 진료와 방문 재활 등 신규 보건 의료 서비스와 영양 도시락과 주거 환경 개선 등 9개 분야 101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준비했다. 아울러 국가돌봄서비스 외에도 △건강·의료 안전망 △맞춤형 방문 운동 등 △건강간지킴이(통합돌봄서포터즈) △

/정소민 기자

영양더하기 △재봉틀사업 등 17개 지역 특화서비스도 구축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방문 조사를 거쳐 건강 및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통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정소민 기자

원칙적으로 무기류 불법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또 신고자가 소지를 원하고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문화유산 향교·서원 지원 조례안 제정

김원주 전주시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 소중한 문화유산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주시의회 428회 임시회에서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내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의한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주 관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보조금 등 사업 지원 근거 △향교·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소민 기자

김원주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전주의 정신적 뿌리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 유교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정보공사-한전, 전력설비 개선 '맞손'

정확한 전주 위치 확보 국가 전력설비 효율적 관리 기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잡고 전력설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나선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국가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력설비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주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량해 지적도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측량 기술을 활용한 전력설비의 정확한 위치측정 △지적도면 기반 점유현황정보 구축 △LX맵을 활용한 전력설비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주 점유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력설비 관리의 정확성과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정보와 전력설비 관리정보를 융합한 현장 중심 실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주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향후 배전설비 전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기관은 추후 기관의 지사 간 1:1 매칭 실무협력단계로 확대해 전력설비 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편의



지난 2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체결된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력공사 전력설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업무협약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증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노후 연구장비 성능개선 지원'

기관당 최대 500만원 지원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노후 연구개발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성능향상-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방치된 공공 연구장비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장비수명을 연장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연구개발 환경 개선에 의미를 뒀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장비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돼 공동 활용 중인 연구개발장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장비들이다. 전북TP 총 2개의 기관을 선정해 지원예정이다.

기관당 최대 500만원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총 유지보수 금액의 50% 이내이며 나머지 50% 이상은 해당 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장비 수리 및 핵심 부품 교체와 같은 유지보수비와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는 성능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전북TP 홈페이지 또는 장비정보제공시스템(<https://jbjangbi.jb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지원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는 지난 27일 김제노인종합지원관에 방문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안내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강대연 김제시지부장, 김용재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장 등 NH농협 금융계열사들이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사람의 쌀 300kg이 전달됐다.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취약계층 금융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만 60세이상 전 국민 100만명에게 무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 "이번 교육과 사업이 사고 예방을 물론,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장한도는 각 최대 1000만원이다. 장길환 본부장은 "지능화·고도화 되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교육과 사업이 사고 예방을 물론,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장 김현중)이 주관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오며 △건강증진 체계구축 △인식 수준 △조직문화 등 총 7개 부문, 4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공사는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을 상시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직무 스트레스 관리 △만보 걷기 챌린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힐링요가 △뇌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힐링 숲 체험 등이 있다.

또 공사는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가 사후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쌀밥 밥맛 평가' 표준화 나선다

벼 육종가 모여 쌀밥 감각 평가 방법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6일 식량자원개발부 가공이용연구동(경기도 수원시)에서 '벼 육종계통 쌀밥 감각 평가 공유 공동연수(워크숍)'를 열었다.

행사는 최근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트렌드)에 맞춰 밥맛이 뛰어난 품종 개발을 가속화하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 국립식량과학원과 각 도 농업기술원 육종가 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각 도 농업기술원 벼 육종가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품종 선발 핵심 지표인 벼 품질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근 벼 품종 개발은 수량성이나 병해충 저항성뿐만 아니라 밥맛과 식감 등 품질 특성이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이번 공동연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침안(매뉴얼) 및 개선안은 영농정보로 제공해 추후 제도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농진청>

LX공간정보연구원, 아동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이명식 원장은 어린이들과 함께 탄소 저감 녹색 공간 만들기에 나선다.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진행된 LX공간정보연구원 탄소 저감 녹색 공간 만들기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해 소나무(해송)를 심으며 '꿈나무와 함께 우리동네 사랑숲 조성' 식목행사로 진행됐다.

행사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랜드 어린이집' 원아와 인솔교사, LX정보전략실(실장 박상혁) 직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목일의 유래와 환경보호교육을 시작으로 반려나무 이름 짓기, 소나무 심기, 이름표 부착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과 협업해 산림청으로부터 묘목 120그루를 지원받아 아이들에게 보다 품질 좋은 반려나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반려나무 성장 사진을 반기별로 어린이집에 제공하며 아이들이 반려나무 성장 과정을 관찰하게끔 지원하고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에너지 절약 실천 위한 '차량5부제'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경영 실천 위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일별 운행 제한 기준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며, 해당 요일에는 본점 및 각 영업점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 차량 및 임산부 차

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승인차량은 예외로 적용된다.

영업점 업무용 차량 역시 운영 특성을 고려해 자율 참여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행기간은 지난 27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이다.

전북은행은 이번 조치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중기부>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모집...내달 24일까지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명문장수기업 선정은 국가균형 성장을 고려해 세대 지속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026년 7월까지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기준 개선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2017년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유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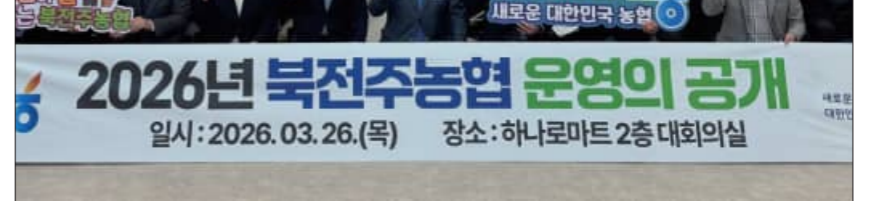
간 10년, 만료 2027년 2월)에 대해 기업평가·평판조회 등을 통해 자격연장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은 4월 24일까지 별도 신청을 자격연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후보기업 국민추천은 온라인으로 4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2025년 결산 운영의 공개 실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3월 25일~26일 농협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결산 운영의 공개를 실시했다.

이번 운영의 공개는 농협의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재무상태, 26년 사업계획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공

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경제·신용·교육지원사업 상세 현황 및 농기계은행사업 등 새로운 조합원 숙원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가 이

뤄졌으며,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조합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진행됐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격려자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운영의 공개는 조합원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 '우리마을 희망동행' 실시

지난 26일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우유), 마을주민 등이 함께 했

다. 대성마을 주민들은 "행사를 통해 농협자산관리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우유 전북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촌마을 활력 부여를 위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농협자산관리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우유 전북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촌마을 활력 부여를 위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자연친화형 신태인 파크골프장 4월 1일 개장

정읍시가 겨울철 잔디 보호와 시설 정비를 위한 임시 휴장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11월까지 신태인파크골프장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휴장 기간 동안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구장 내 잔디 관리와 주차장 정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을 완료했다.

동진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신태인파크골프장은 36홀 전 홀이 독립 구역으로 조성돼 동호인들에게 최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 2024년 9월 전북 지역 최초로 36홀 공인 구장 인증을 획득하며 시설의 우수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연간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5월 22일까지 고독사 예방 위한 가구 조사 추진

군산시(권한대행 김영민)가 고독사 예방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2월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5만 5,895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1차는 방문을 통한 거주 및 고립 여부 확인, 2차는 상담 이력 검토와 우선 상담, 3차는 고위험군 대상 심층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즉각 연계하고, 고난도 사례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통합사례관리사가 집중 관리를 이어가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 권한대행은 "이번 전수조사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날같이 살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스마트 구강관리'로 어린이 치아 건강 지킨다

익산시가 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에 나선다. 익산시보건소는 11월까지 미취학 아동 기관 4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덴탈 키즈 매니저' 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광대학교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과 협력해 3년째 추진되고 있다.

시는 구강건강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참여 어린이집 2개소와 신규 신청 유치원 2개소를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사업은 4회에 걸쳐 교육부터 체험 프로그램,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1·3회차에는 아동이 원광대학교 내 교육 공간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시청각 기반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AR체험과 칫솔질 게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2·4회차에는 보건소 담당자와 원광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과 치위생 분야 교수진이 아동기관을 방문해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단이 보유한 첨단 치아우식(충치) 진단 장비를 활용해 충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의 구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진용 보건소장은 "어릴 때 형성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은 평생 구강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보건소와 대학이 협력해 아동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익산, 민생 안정 도모 2(題)

군산사랑상품권, 내달 13% 할인

군산시는 중동 정세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4월 한 달간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국·도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4,000억원에서 5,0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4월 한 달간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한시 상향한다.

이는 시민 체감 혜택을 확대하고 단기간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 부시장 주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TF 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경제 안정 및 상권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가당 최대 3억 용자 지원

익산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용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농업 시설이나 장비,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목돈을 빌려주고 이자의 상당 부분을 시비로 메워주는 '2026년 미래농업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이란 농민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익산시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 익산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기존 5.5%에서 4.98%로 전격 인하했다.

여기에 영세농, 청년농,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은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성장 기업 지원 사업' 추진

기업당 1,800만 원 지원

익산시가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성장 기업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결실이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익산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8개사 내외다.

공고일 기준 익산 소재 기업 중 사업 기간 내에 최소 1명 이상의 새로운 직원을 뽑고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기술 고도화 지원 △공정 개선 및 양산성 검증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기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익산시>

지원에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17일까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준비해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담당자 전자우편(zia8997@jvada.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설 '사실무근'

"인상 계획 없어, 사재기 자제 당부"

군산시는 최근 중동 지역 분봉과 국제 유가 불안정으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지난 27일 공식 밝혔다.

최근 군산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 분봉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E)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지자체 자체법규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이 없으며,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국제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군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필요한 수량만 구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벚꽃축제' 4월 3~5일 개최

정승환·민정훈 등 인기가수 출격

정읍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인 '2026 정읍 벚꽃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개최하며 상춘객 맞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991년 시작돼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정읍 벚꽃축제는 정읍천 벚꽃길을 따라 화려하게 펼쳐지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제다. 올해는 '정읍과 봄'이라는 메인 슬로건 아래, '벚꽃을 봄, 문화를 봄, 내일을 봄'이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아 운영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개막식부터 폐막까지 3일 내내 쉬 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공연 라인업이다.

개막일인 4월 3일에는 오후 6시 김예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6시 30분에 공식 개막식이 열린다. 이어 정승환·김용임·라잇썸·카르디



정읍 벚꽃축제가 펼쳐지는 정읍천

<사진=정읍시>

오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축하 공연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둘째 날인 4일에는 민정훈·정슬·아리안 등이 무대에 오르는 벚꽃 콘서트가 열리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예린·한강·강혜연 등이 참여하는 폐막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천 벚꽃길의 빼어난 풍경에 걸맞은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했다"며 "흠날리는 벚꽃과 함께 풍성한 공연·체험을 마음껏 즐기며 정읍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봄날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환경친화형 공동방제사업' 확대

사업비 41억 원 투입 7~8월 중 시 전역 실시

군산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환경 제매단지를 넘어 시 전역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전격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약 41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며 오는 4월 중 읍면동별 방제협

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선호 약제를 추천 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약제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집중 방제기간인 7~8월 중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군산시 내 논벼 재배 농가 1ha 기준 최대 35만원 상당의 친환경 약제를 지원받으며, 방제 비용은 농가 부담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4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

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각 소재지별로 신청해야 하며, 기본형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지도 실경차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군산 쌀의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기 방제를 통해 소중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6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모집

내달 15일까지... 시설 개선 등 자금 지원

정읍시가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선발된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인력을 추가로 선발해 경영 규모 확대와 시설 개선

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청년 후계농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최종 선발된 우수후계농에게는 영농 규모 확대,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정책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대출 실행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연 15%의 고정 금리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돼 농가의 경

영 자금 부담을 낮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마감일까지 주소지 관할 8개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 및 관할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총 70종 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일인 지난 27일 초고령사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시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400여 명을 발굴했으며, 이 중 180여 명에게 방문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신상,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 1월 본청에 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하고 23개 읍·면·동과 보건소 등 유관 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했다. 또한 2025년 9월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올해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16개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예산은 총 6억 43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기존 국가돌봄서비스 60종에 정읍시 지역특화서비스 10종을 더해 총 70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특화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방문의료 활성화와 지원, 건강맞춤 영양식사 서비스, 안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틈새 청·접수부터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확립했다.

이학수 시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핵심 돌봄 안전망"이라며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주민자치회 전문성 높인다

임원진 대상 역량강화 교육

익산시가 주민자치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예술의전당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에 따라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함영을, 용안면, 중앙동, 신동, 영동1동, 삼성동 등 6개 주민자치회 사무국 임원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자치사업 운영 사례 공유 △사무국 운영 실무 △2027년 마을의 제 발굴 및 실행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기획부터 실행, 예산 관리까지 자치사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과 타지역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익산시는 자치사업 운영 지원과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 "3번째 권역거점 구축"

고창군이 3번째 권역거점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식을 열면서 '농촌인력난 완벽해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흥덕면 일원에서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식'을 열었다.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남부권, 2026년 2월 개관한 중부권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권역 거점시설이다. 고창군은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급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

북부권 기숙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 농업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건립되는 사업이다. 특히 북부권(흥덕권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창군은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북부권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이며, 완공 시 북부권 일대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통해 농가에는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왔다.

특히 기숙사 운영을 통해 인건비 안정과 농작업 효율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전국 최대 수준의

농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숙사 확충과 연계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정책에 함께 추진 중이다.

고창군은 오는 2030년까지 권역별로 총 5개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구축해 농촌 인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벽해결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북부권 기숙사 기공은 고창형 농촌 인력정책이 권역별로 완성돼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는 보호받고 농가는 안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력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이동 출입국 서비스, 이동 마약검사실 운영, 이동 은행 서비스, 고창사랑 상품권 소비정책 등 '고창형 농촌인력 4대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입국부터 정착,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없다"

"연말까지 공급 문제 없어"

전북 고창군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 "현재 고창군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연말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께선 혼란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대량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신규 디자인 종량제봉투 제작을 대비해 이미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약 6개월분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 가격 인상 우려 등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로 과도한 구매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군은 "종량제봉투는 사전 물량 확보와 재고 관리를 통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대량 구매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보한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 가격 인상 우려 등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로 과도한 구매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군은 "종량제봉투는 사전 물량 확보와 재고 관리를 통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대량 구매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은행, 김제 미래 인재 위해 장학금 1억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7일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김제사랑장학재단과 전북은행 김제시지부가 체결한 금고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장학재단 기금을 운용 관리하게 되며, 이번 기탁금을 포함해 협약 기간 동안 매년 1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장학재단에 후원할 예정이다.

최종구 부행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장학금이 김제시 학생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할 용기를 주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사랑장학재단 정성주 이사장은 "전북은행이 지난 16년 동안 지역 인재들을 위해 한결같이 따뜻한 나눔을 이어와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정성이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해져 김제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중동사태 극복 승용차 5부제 시행

석유 소비 절감 일환

부안군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이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 공용차와 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의무 적용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승용차 5부제 시행과 함께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군 차원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추진 내용에는 불필요한 조명 및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냉·난방설비 가동 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등이 있으며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승용차 5부제 시행과 함께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군 차원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추진 내용에는 불필요한 조명 및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냉·난방설비 가동 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등이 있으며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 소음포 봉수' 국가사적 지정 학술세미나 개최

고창군이 '고창 소음포 봉수(高敞 所應浦 烽燧)'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지난 26일 고창신재호 판소리공연 체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창 소음포 봉수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을 주제로, 지난해 진행된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리면 광승리에 위치한 소음포 봉수는 여수 방담진에서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제5회 직봉 노선의 26번째 봉수다.

조선 시대 연변봉수 중 하나로, 전남 영광에서 전달된 신호를 부안으로 연결하며 왜적의 침입을 알리던 핵심 국방 시설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대 본체와 연조(아궁이), 방호벽 등의 구조가 명확히 확인돼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세미나에서는 △고창 소음포 봉수의 구조와 특징 △문헌으로 본 고창 소음포 봉수의 지정 가치 △사적 지정을 위한 보존 및 활용 방향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고창군은 "소음포 봉수는 고창의 국방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늘 도출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결하며 왜적의 침입을 알리던 핵심 국방 시설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대 본체와 연조(아궁이), 방호벽 등의 구조가 명확히 확인돼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세미나에서는 △고창 소음포 봉수의 구조와 특징 △문헌으로 본 고창 소음포 봉수의 지정 가치 △사적 지정을 위한 보존 및 활용 방향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고창군은 "소음포 봉수는 고창의 국방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늘 도출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제 '다시온 마을' 방문

"농촌에 사람이 다시 온다" 김제가 중앙부처와 농정현장 소통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7일 김제를 방문해 다시온(ON:溫)마을 시범지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시온위원회 위원(지역주민, 청년 창업가 등)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다시온마을'사업의 현장 이행 상황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시온마을'은 생활인프라와 지역 특화자원을 연계해 창업·일자리, 관광,

체류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통합형 농촌재생 모델이다. 김제 죽산면은 고창, 밀양과 함께 시범지구로 선정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죽산면 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 통합형 사업의 경우 노인 복지와 생활서비스를 강화하는 '생활거점'과 청년 창업 및 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활력거점'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송 장관은 "다시온마을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농촌재생 모델"이라며 "주민과 청년, 행정, 중간지원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성공적인 농촌 활성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세일즈 업 청춘 프로젝트' 본격 가동

청년 창업기업 진출 확대 및 매출 증대 지원

김제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 '2026년 김제시 세일즈-업(UP) 청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책인 '김제 희망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늘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지원 내용은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15개사) △국외 박람회 참가 지원(5개사) △지역 축제 연계 직거래 프로모션 지원(10개사)으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시장 진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도모해 청년 창업기업의 강화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은 입점비의 70%(기업당 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며 국외 박람회의 경우 해외 현지 버스 입점비와 바이어 미팅을 위한 통역 서비스 등을 포함해 기업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청년축제 등 관내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 입점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18~39세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업이다.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김제시로 전입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및 사업 내용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s://event.jbc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창업기업



<사진=김제시>

이 지역을 넘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꿈을 끝까지 뒷받침하는 든든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접수

내달 1일 ~ 6월 1일까지 공공시설·노후 건축물 등

부안군은 군민이 직접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점검을 요청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지자체가 점검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위험 시설을 직접 신청하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 관리 제도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신청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 내에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첨단 점검 장비가 투입되는 합동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보수·보강 방법 등을 도출한다.

점검 결과는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신청인과 시설 관리 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점검신청제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사회복지 현장과 직접 소통

복지 현안 해결 위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김제시는 지난 27일 고용·복지공공교육관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시장과 함께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단체회원 대표,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등 지역 사회복지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시의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 시장은 "지역 복지는 행정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 시장은 "지역 복지는 행정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수소특화산업단 예타 통과 ‘본궤도’

경제성 확보 사업 타당성 입증 전국 두번째 빠른 통과 사례 19만평 우선 조성 단계적 확장

완주군 수소경제 핵심 거점 도약을 위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경제성(B/C) 1.06, 종합평가(AHP) 0.50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 이는 2023년 선정된 15개 신규 국가산업단 후보지 중 3개 지역의 예타 면제를 제외하고 대구 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통과 사례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조성되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예타 통과 이후 사업시행자인 LH 및 전북개발공사에서 오는 4월 국가산업계획 수립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 국토부 국가산업계획 지정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부지 <사진=완주군>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완주군은 50만 평 규모로 예타를 의뢰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대내외 기업 투자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19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조성을 우선 승인을 받았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사업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선(先) 유치 후(後) 확장’이라는 실리를 택했다. 우선 조성되는 19만 평의 국가산업단지에 수소 저장 용기 및 수소 모빌리티 관련 엔지니어링 기업을 조기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이번 예타 통과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군이 구축해 온 수소 산업 인프라 기반 위에 수소 용품 및 중대형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기업 유치와 수소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이끌어낼 핵심 퍼즐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잔여 31만평 부지 조성에도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긴밀히 협력해 당초 목표했던 50만 평 규모의 ‘수소 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전 읍면 공영마을버스 시대 완성

고산북부권 버스 개통식 개최 친환경 수소버스 전면 배치

완주군이 고산북부권 공영마을 버스 운영을 본격화하며 전 읍면에 걸친 공영 노선망 구축을 완성, 명실상부한 ‘교통 복지 1번지’로의 도약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고산만경강 파크골프장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지역 도·군의원 및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산북부권 공영마을 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인 고고 장구와 풍물놀이로 막을 열었으며, 경과보고, 인사말, 테이프 커팅, 시승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 군수는 행사장인 파크골프장에서 고산터미널까지 직접 친환경 마을버스에 탑승해 시승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공영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

다. 2023년 11월 시민여객과 노선권 매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선권 매입을 완료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10월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이번 고산북부권 공영화를 기점으로 완주군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도시 명성에 걸맞은 친환경 수소버스를 전면 배치해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접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군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무료 임시운행을 실시해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공영화로 과거 민간 업체 운영 시 빈번했던 무단 결행이나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81회 식목일 행사 ‘녹색 순창’ 조성 앞장

순창군은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7일 귀래정 유아숲 일원과 군청 앞 경천변 일대에서 기념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시 찾고 싶은 순창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무원과 산림조합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나무 심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군청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식재 구간으로 이동해 수국 1,200주와 잔디 230㎡를 식재하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함께 실시했다.

또한 오후에는 양지천 일원으로 이동해 꽃잔디와 수선화 식재 구간 정비 등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도 이어가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아동수당 확대...연령·금액 동시 상향

월 11만원 지급 인구감소지역 반영 지급 연령 만9세 미만까지 확대

남원시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법률 제 21489호, 2023.3.20.) 개정에 따라, 남원시는 기존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9세 미만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연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남원시 만 9세 미만 아동 인구는 2,800여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전년도 보다 500여명이 늘어나며, 인구 감소 우대 지역 적용으로 기존 월 10만 원이던 아동수당에 1만원을 추가해 월 11만원을 지급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1월-3월분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구립분원 시범운영...유아체험교육 거점 ‘첫발’

하루 최대 200명 참여 공간 구축 순창형 유아교육 브랜드 기반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력해 조성한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이하 구립분원)’이 지난 2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지역 유아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립분원은 자연·생태·문화 요소를 융합한 체험 중심 교육공간으로, 기존 교실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현장형 교육 플랫폼이다.

특히 창의력과 사회성, 협력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통합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본격적인 정상 운영에 앞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적응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외체험은 이달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1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이어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내체험은



회차당 150명 규모로 확대된다. <사진=순창군>

회차당 15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후 6월 22일부터는 실내·외 체험이 통합된 정식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하루 최대 200명의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체험교육 공간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군과 구립분원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운영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립분원은 지역 자원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순창형 체험교육 브랜드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이 지역 유아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주거 부담 낮춰

월 최대 20만원 2년간 지원 확대 청약통장 요건 폐지 문턱 낮춰

남원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해 온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했으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4.7억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이 1.22억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차 사업에서 적용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폐지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으로 월세를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자체 사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도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하고 5월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마을버스, ‘카카오톡’ 실시간 정보 제공

시 기반 초정밀 위치 강화 전주 연계 노선 검색 편의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6일부터 모바일 지도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완주군 마을버스의 실시간 이동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한 단계 높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버스 위치를 센티미터(cm) 단위로 정밀하게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초정밀 라이브 버스’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공단이 쉐카카오와 기술 협력을 맺으면서, 군민들은 기존의 정밀한 버스 위치 정보를 활용도가 높은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계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은 카카오톡 앱에서 목적지만 검색하면 초 단위 도착 정보와 함께



환승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전주 시내버스와 연계된 마을버스 노선 검색도 수월해져 완주와 전주를 오가는 주민들의 이동 효율성도 높아졌다.

이희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반의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막힘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경찰수련원 건립 확정 기념식수 행사

부지 일대 3천여 그루 나무 식재

남원시는 지난 27일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 확정 기념 ‘기념식수 및 청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 경찰수련원의 본격적인 조성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남원시의 새로운 생태 거점이 될 합파우 지방정원의 친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해 남원경찰서, 남원시의회, 남원시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건립 예정지 일대에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경찰수련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건립이 확정된 ‘남원 경찰수련원’은 118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시 연간 15만 명의 방문객 유치와 약 217억 원의 경제효과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련원 일대는 2만여 본의 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합파우 지방정원으로 조성돼 향후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사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닌 남원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을 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민관 합동 표본점검...해빙기 안전관리 강화

군열·낙석·배수 상태 현장 점검

순창군이 불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지난 26일 산업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앞서 각 부서별로 실시한 전수 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2차 확인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조광희 부군수는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

로 비탈면 균열과 침하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배수시설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성과 국가유산 주변 지반 상태까지 살피며 해빙기 취약요인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군은 점검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사후 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광희 부군수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서 ‘제철 딸기 직거래 장터’ 성황

완주경제센터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완주물’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제철 딸기 직거래 장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직거래 장터는 지난 3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운영됐다.

농가에서 당일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시중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신선도를 동시에 확보하며 방문객 및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에게 완주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매 회차 준비된 물량이 조기 품절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참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김병수 완주경제센터장은 “이번 직거래 장터는 완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쌓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발굴하며 관내 소상공인과 농가의 상생 유통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아트센터·예가람 문화공간 4·5월 지역 미술 전시 이어져

남원시가 봄철을 맞아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 문화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를 잇달아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시 향교동(만민로 92)에 위치한 남원아트센터는 지난 2017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을 통해 구 KBS 방송국을 리모델링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 시설이다.

지난 24일부터 남원 출신 이을 작가의 ‘춘향 Re:PLAY’가 전시 중이며, 4월 5일부터는 우이 최은영 작가 등 경남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공유자산 Commonwealth : 함께 쓰는 것들의 관계’의 호남권 거점 시설로 선정되어, 9월부터 10월까지 수준 높은 공예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시 하정동(동원길 84)에 자리한 예가람 문화공간은 1·2층의 전시 전용 공간과 3층의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다.

이곳에서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김종숙 작가의 민화 개인전 ‘남원의 숨결, 민화로 피어나다’가 열린다. 이어 5월에는 박경옥 작가의 한국화 전시와 최승후·이필준 작가의 서예와 회화가 결합된 ‘厚畵山墨展(후화산묵전)’이 차례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발작물 우량종자 전국 단위 신청 시작!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발작물 우량종자의 전국 단위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원활한 영농 준비를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공급하는 발작물 종자는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종자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개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접수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공급되는 발작물 종자는 콩, 팥, 녹두, 들깨, 앞들깨 등 5작물이며 총 12개 품종이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 종자 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배송비는 선불이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전작물(콩, 팥) 정부 보급종 신청도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주요 공급 품종은 선종콩, 대찬콩, 아라리팥으로 전국에 잔량이 있는 품종에 한하여 지역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은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급종 수령 시 신청자명을 확인 후 종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종자 신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에서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움직이는 치과병원' 운영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버스구입 사업비 전액 기탁

임실군이 구강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리는 치과' 이동구강진료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광장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재 박성춘)의 후원으로 제작된 45인승 대형 이동구강진료 버스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 보건 수준을 높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버스 도입은 임실군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결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기존 진료 차량이 노후화로 잦은 되면서 잦은 고장과 장비 부족으로 원활한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라이온스협회 측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업비 3억 6,800만원 전액을 쾌척해 기탁, 최첨단 진료 장비를 갖춘 대형 버스를 제작해 임실군에 전달했다.



임실군은 지난 27일 군청 광장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의 후원으로 제작된 대형 이동구강진료 버스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

새롭게 도입된 이동구강진료 버스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움직이는 치과 병원' 수준으로,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이를 활용해 오지 마을 주민과 장애인 시·읍·면,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및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 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서비스는 △구강검진 및 상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치아 시립 완화를 위한 저작과민 처치 등 예방 중심 진료로 구성되며,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어르신들 대상 틀니 관리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보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건강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 성료

전국서 아마추어 동호인 및 자원봉사자 등 4천여명 참가

'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대회'가 지난 29일 무주읍 일원에서 마무리되며 전국에 다시 한번 '스포츠클럽 무주의 명성'을 확인시켰다.

전국에서 아마추어 동호인 및 자원봉사자 등 4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회장 장영기)·무주군마라톤협회(회장 허동일)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후원했다.

경기는 오전 9시 하프(Half)경기(21km)를 시작으로 10km, 5km 경

기가 이어지며 장관을 연출했다.

모든 종목의 출발과 도착 지점은 '무주출산'으로, '하프' 종목의 선수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금강 숲길 입구, 추동 반공탑을 돌아오는 코스를 달렸으며, '10km' 선수들은 무주 소방서를 지나 서면교 삼거리, 강변도로 삼거리, 당산대교를 건너 도착했다.

대구에서 온 성 모 씨(44세)는 "평소 달리기를 좋아해서 전국의 마라톤 대회에 자주 참가하는데, 무주는 코스와 경관, 지원 모두 최고"라며 "작년에는 혼자 왔었는데 올해는 아내랑 아이까지 온 가족이 참가해 더 의미가 있고 기억에도 남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민원관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 군민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청원경찰, 장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여해 폭언·폭행, 시설물 파손, 위협 행위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유형을 실제 상황처럼 재현하고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또한 비상벨 작동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과정을 함께 실시하며 비상 연락망과 대응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숙지 강화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심리 상담 지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정확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진안군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본부 동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종 도로 공사 및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설치 공사로 인해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5조에 따라 추진된다.

군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관내에 설치된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등 총 7,584점에 대해 7월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기준점의 유무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GPS(위성) 측량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위치의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기준점은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약 380점을 재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하여 향후 지적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안=전철빈 기자

장수군, '30일 썸머 캠퍼스' 본격 추진

운영단체 공개 모집 청년 유입 기반 마련

장수군은 지난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학생 체류형 로컬 프로젝트인 '2026년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를 운영할 보조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는 대학생 방학 기간 동안 관내 청년단체, 농가, 관광자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직접 경험

하고 장수군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4개 관내 단체·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체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소재하고 대학생 대상 로컬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단체 또는 사업자이며,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공연 △로컬 브랜드·상품·레시피 기획 및 개발 △지역행사·축제 운영 지원 △

로컬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군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접수는 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 대응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jung67@korea.kr)으로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 결과는 4월 10일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되며, 이후 대학 및 참여 학생과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모집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65세이상 어르신 선착순 모집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오는 30일부터 4월까지 2026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할 65세이상 어르신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

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6개월간 보건소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소지자 중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아이폰 소지자 및 전년도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강변접조사에 따른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을 선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실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올해도 풍년이오!

영농발대식·풍년기원제 개최 농업인 단결과 발전 도모

무주군이 지난 27일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를 통해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 무주군 농민회가 주관한 가운데 무풍면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영농 발대 선언, 풍년기원제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농업인 등 1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통 제례로 자연과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농업인 권의 보호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천세열 씨(농업기술센터), 서정일 씨(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황진성 씨(구전동농협), 김영한 씨



(무주농협) 등 4명이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의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무주군 농민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현웅 무주군 농민회 무풍면지회장은 평소 농업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정으로 인한

국제가구 상승,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등 영농 준비 단계부터 현실이 녹록하지 않겠다"라며 "무주군은 현장 중심의 용수 관리와 영농지도, 작물 생육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강화해 매사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의회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남수의원대표 발의



장수군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

련될 전망이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

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술 오남용으로 부터 군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남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수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복지 AI 서비스를 발굴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장수군을 미래형 지능정보사회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실시

임실군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1차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합 농가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시비(비료 뿌리기)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을 준수하여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행점검항목은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으로 토양화학성분 적용기준에 따라 적합여부가 판단되며, 1차 부적합시 다음해

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2차 검사를 통해 최종 적합여부가 결정되며, 부적합일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양검정을 통한 비료사용처방의 추천량을 준수하여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토양화학성분 기준에 적합하게 된다. 또한, 비료사용량을 줄여 경영비가 감소하고 토양환경개선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할 수 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토양검정을 진행하므로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토양을 채취해 분석 의뢰를 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진행

청소년 보호 인식 확산

장수군은 지난 23일, 개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신규 개업 음식점과 청소년 출입 제한 주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및 제공 금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업주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활동은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농어촌공 익산지사, 왕궁저수지 환경정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태음)는 지난 26일 왕궁저수지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구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왕궁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잡초 제거 및 경관 정비 활동을 병행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힘썼다. 특히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각종 폐자재를 집중적으로 정리하



여 수질 오염 예방과 경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도모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이리신광교회, 부활절 맞아 백미 기탁

백미 약 2,100만원 상당 전달

익산시에 이웃을 위한 든든한 나눔이 전달돼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이리신광교회(담임 목사 권오국)’가 부활절을 맞아 백미 10kg 700포(2,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익산시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식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국 담임목사는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이리신광교회에 감사하다”며 “기탁된 물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의회 의원들, 효사랑 실천 표창받아

이순덕·성중기 의원 표창 효소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성중기 의원은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어르신 이 존중받는 지역이 진정한 살기 좋은 완주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배려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어르신 이용시설의 환경 개선과 복지 여건 향상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최유진 한결전기 대표, 부안 변산면에 성금 기탁

부안군 소재 ㈜한결전기 최유진 대표는 지난 27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써달라며 변산면에 현금 100만원을 쾌척했다. 최유진 대표는 변산면에서 발주한 가로등 설치 공사 이득금의 일부를 지역에 다시 환원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선뜻 성금을 기탁하면서 수년째 끊임 없는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 지역주민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 실천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최대표는 변산면에서는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로 재능기부를 통해 전기 안전점검 및 분전함교체, 주거환경개선사업, 선풍기 기탁, 장학금 기탁 등 변산면 이외에도 부안군 곳곳을 누비며 잔잔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 무장면지사협, 결식위기가구에 밀반찬 지원

고창군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필구, 민간위원장 류창현)가 지난 27일 어려운 환경의 위기가구 50세대에게 밀반찬 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장조림 및 어묵볶음 등 5종으로 구성된 밀반찬으로 위원들이 가정방문 및 안부 인사와 함께 전달하였다. ‘정성 가득 솥찌가득 반찬 지원사업’은 무장면지사협의 특화사업으로 반찬을 전달하면서 고독사 위험군 및 결식위기가구를 항시 방문하고 있다. 아울러 고창지역자활센터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도마지파 전주교회, ‘목회자 초청 토크 콘서트’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전주교회(담임 이용우)가 지난 21일 전주 하늘문화센터 홍보관에서 지역 목회자와 시민 100여 명을 초청해 ‘2026 목회자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계 소통을 강화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실에서는 이용우 지파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청중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적 강연 대신 벗어나 사전 질문지를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예수교회와 교류 중인 교회의 실제 목회 성공 사례 영상이 상영돼 교계 상생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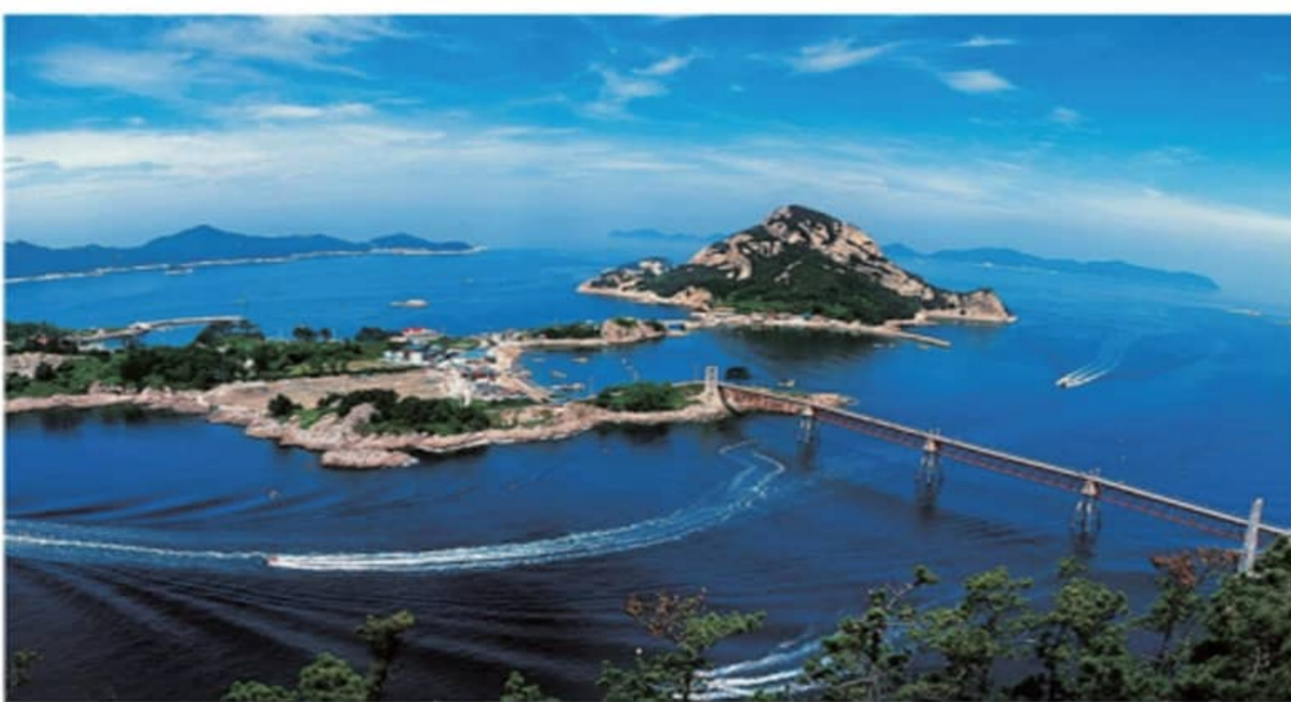
전북은행, 김제시에 생필품 꾸러미 기탁

저소득 계층에 온기 전달 쿨키트(Cool Kit), 명절 맞이 생필품 세트 등 시즌마다 꼭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전북은행 최중구 부행장은 “10년 넘게 이어온 김제시와의 소중한 인연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상황에 맞는 세심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든든한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신세계전력,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주)신세계전력은 지난 23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무주읍에 위치한 (주)신세계전력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평소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의용소방대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한상희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라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역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동력이 돼 무주를 더 따뜻하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노블레스오블리주 무주 운동(반디나눔)’에 지정 기부해, 지역 내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열린 수협!
희망의 수협!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一事一言〉

판결은 끝났지만 상식은 남는다, 보험제도의 허점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티눈 제거 수술을 2500회 가까이 받고 약 7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분명하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기판력' 원칙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판결의 안정성과 법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 역시 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2500회에 달하는 반복 수술과 그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 수령은 누구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하루 걸러 한 번꼴로 수술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의료적 필요성보다 '보험금 청구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에 충분하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보험 상품 구조, 그리고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관리 시스템에 있다.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수의 사고를 보전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보험사는 '부정 지급'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점을 짚어야 한다. 보험사가 진정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심사, 반복 청구에 대한 모니터링, 의료 행위의 적정성 검증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사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한 셈이다. 의료기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일한 시술이 수천 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료적 필요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 행위가 보험 청구와 결합되는 순간, 단순한 치료를 넘어 경제적 유인이 작동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는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를 갖게 된다. 대법원은 "수술 횟수 증가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증거의 축적'이 시스템 이상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였어야 한다. 법은 과거를 판단하지만, 제도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보험·의료·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다. 사후 처벌이나 소송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복 청구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특정 시술에 대한 기준 강화,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리스크 통제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이 작동하는 제도'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회적 납득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상식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그 제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허점을 방치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사설

전주에 모이는 글로벌 자본, 금융지도 바꾼다

전주가 '연금도시'를 넘어 글로벌 금융 거점으로 도약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후 축적된 자산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적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동지를 틀며 금융 생태계가 집적화를 이루며 빠르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흐름은 구체적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 서비스 기업인 골드만삭스가 전주 사무소 개설과 한국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블랙록,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도 전주에 잇따라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을 시작으로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이 진출했고 국내 금융지도 바꿀 때까지 가세하면서 금융타운 조성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금융 클러스터' 형성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자산 규모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전주 이전 당시 500조 수준에서 1600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평가받는 규모로, 글로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할 '핵심 고객'이다. 결국 자산이 있는 곳으로 금융이 모이는 시장의 기본 원리가 전주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여의도 중심의 금융 지형이 분산되는 번복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실로 크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지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방안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과정에서 전북 소재 운용사에 일정한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금융 생태계를 지방에 뿌리내리게 하는 실질적 장치라 될 것이다. 동시에 제도적·인프라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국제금융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의료 환경, 외국계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규제 완화, 그리고 핀테크와 자산운용을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다. 외형적 유치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도시'로 발전해야 진정한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전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회를 살려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 성과에 그쳐 반쪽짜리 금융도시에 머무를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이전 정책의 성공 여부 역시 전주의 사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행과 일관된 정책 의지다. 전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권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다.

오늘의시

붉은 우체통 / 황지우

버즘나무 아래
붉은 우체통이
명하니, 입 벌리고 서 있다
소식이 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여, 비록 그대가
폐인이 될지라도

그대를 버리지 않겠노라
고 쓴 편지 한 통 없지만,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길가에서 안개꽃 한 묶음을 사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뱃가죽에 타이어 조각을 대고
이쪽으로 기어서 온다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나는 너다' '개 눈 속의 연꽃'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 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문화재 열전

미륵암 석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일 - 2005년 12월 1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장수군 초장길 51-61
(산서면, 미륵암)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광주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응원합니다!

2026 선임대후매도 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선임대후매도 사업이란?
본 사업은 영농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장기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청방식	연 1~2회 공고	상시 접수
지원면적	1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 0.5ha)	1.5ha 이내

사업기간: 2026년 2월~10월 *운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신청자격: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9세 이상도 지원 가능

상담/문의: 농지 소재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홈페이지: www.fbo.or.kr

정읍시, 교통 대전환 '시민·교통약자 중심'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정읍시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배려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기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정읍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체계적인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교통분야에 약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약자 맞춤형 지원 등 6대 핵심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체감형 교통복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편집자 주)

■ 대중교통의 진화...친환경 버스 확대와 시민 체감형 요금 정책

정읍시 대중교통 혁신의 첫걸음은 친환경 차량 전환과 쾌적한 대기(待期) 환경 조성이다. 시는 올해 약 11억원을 투입해 전기 저상버스 8대

를 추가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관내 전기 저상 버스는 총 18대로 늘어난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접근성을 대폭 향상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교통복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핵심 수단이다.

대중교통 대기 공간인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에도 9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30개소, 3억 4000만원) △지붕 누수 등 시설물 정비(285건, 1억 8700만원) △탄소 운영발열렌치 설치(50개소, 1억 5750만원) △승강장 청소(연 4회, 1억 1300만원) △승강장 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80개소, 4000만원)를 추진한다. 외곽 지역의 불편 사항까지 적극 반영해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기존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일반 1000원, 학생 500원, 교통카드 50원 추가 할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전면 시행한다. 하차 후 1시간 이내 탑승 시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 가능한 이 제도는 3월 23일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된다.

수익성 한계로 노선 유지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벽지노선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 맞춤형 복지택시 확대 및 보행 안전망 구축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촘촘한 맞춤형 이동 지원도 강화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농촌 복지택시' 사업에 11억 4576만원(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9억 9576만원)을 투입한다.

버스 승강장까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6개 읍·면·동 338개 마을에 차량 31대를 투입해 병원 진료나 관공서 방문 등 농촌 어르신들의 필수적인 일상 이동을 돕는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특별교통수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바우처택시' 20대를 전격 도입한다. 기존 휠체어 장애인콜택시 18대와 입차택시 4대만으로는 배차 지연 문제가 심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4억 8000만원을 투입해 도입하는 바우처택시는 일

반 영업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호출 시 전용으로 전환돼 운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 평균 30분 이상 소요되던 대기시간이 15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어린이·노인·마을주민 보호구역 54개소에 1억 1000만원을 들여 노면표시와 보호 펜스 등 시설물을 보수하고, 44개소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살때조사를 벌여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영원초등학교 인도 정비(3억원), 정읍동초등학교 펜스 교체(2000만원), 도학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구역 해제 정비(4100만원) 등을 진행한다. 보행자 횡단 시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8000만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 기초 교통질서 확립...첨단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심 주차난 해소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의 방점은 첨단 인프라 확충과 주차환경 개선에 쫓는다. 시는 교차로

및 도로 구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호기 교체·신규 설치에 3억 4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9000만원을 투입한다.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고 횡단 편의를 돕는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6000만원)와 횡단보도 안전등(2000만원)도 확충한다. 이외에도 교통안전표지판 정비(1억원)와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정비(5억원)를 통해 도로 시인성을 대폭 높인다.

고질적인 도심 교통 체증과 불법 주차차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총 32억 35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주차장 확보에 나선다. 현대1차아파트 앞(48면), 현대3차아파트 뒤(33면), 칠보초등학교 옆(14면), 시기동(41면), 샘고을시장 제2공영주차장(11면) 등 주거 밀집 구역과 전통시장 주변 5곳에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읍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121개소, 4160면으로 늘어나 도심 교통흐름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6대 교통정책 추진을 통해 단기적인 불편 해소를 넘어 기후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선진 교통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